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3
FOR PEACE & PROSPERIT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Sharing and Pea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Kim Man-duk Global Awards

2023년 5월 31일(수) 13:30~14:50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한라홀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Contents

목차

7	축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9	축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인사말 양원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13	개회사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17	기조발표 고두심 (배우 /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나눔문화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
27	발표 Freda Miriklis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세계 여성경제인 네트워크와 호주 이니셔티브로부터의 교훈
39	토론1 양원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김만덕 선양사업의 성과와 김만덕국제상의 비전
47	토론2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국제자유도시 제주,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의와 다자간 협력 방안
53	토론3 송경애 ((주) BT&I 대표이사, 김만덕상 수상자) 여성경제인·김만덕상 수상자의 관점에서 본 김만덕국제상의 의의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2023년 5월 31일 (수) 13:30 ~ 14:5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한라홀

시간	내용
13:10~13:30	안내 및 착석
13:30~13:40	축 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축 사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인사말 : 양원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개회사 :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13:40~14:45	<p>좌장: 예종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p> <p>기조발표 : 고두심 (배우,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나눔문화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p> <p>발 표 : Freda Miriklis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세계 여성경제인 네트워크와 호주 이니셔티브로부터의 교훈</p> <p>토 론 1 : 양원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김만덕 선양사업의 성과와 김만덕국제상의 비전</p> <p>토 론 2 :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국제자유도시 제주,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의와 다자간 협력 방안</p> <p>토 론 3 : 송경애 ((주)BT&I 대표이사, 김만덕상 수상자) 여성경제인·김만덕상 수상자의 관점에서 본 김만덕국제상의 의의</p>
14:45~14:50	Q&A

오영훈

Younghun Oh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맞아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세션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재)김만덕재단 양원찬 이사장님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만덕은 뛰어난 역량을 지닌 경제인으로, 미국 무역을 통해 거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민이자 여자라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능력을 당당히 발휘하며 강인한 제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렵게 쌓은 부를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김만덕은 100여 년 만의 큰 흉년과 태풍 피해로 제주도민이 굶주릴 때, 전 재산을 내놓아 많은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추사 김정희가 손수 쓴 편액에서 당시 많은 이들이 의인 김만덕의 덕에 크게 감복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만덕국제상(가칭)’은 이러한 나눔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온 누리와 공유하는 뜻깊은 상입니다. 부의 양극화로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지금, 김만덕의 나눔정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션이 그 첫걸음이 되어, ‘김만덕국제상(가칭)’이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는 명예로운 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김만덕국제상(가칭)’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학

Kyunghak Ki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Chairpers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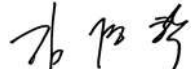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세션이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눔과 봉사의 상징인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양원찬 김만덕재단 이사장님,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큰 흉년으로 굶주림에 처한 제주도민을 위해 모든 재산을 털어 생명을 구한 의인 김만덕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나눔과 봉사의 표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나눔은 단순히 부의 사회환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공존이며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은 빈곤퇴치와 불평등이라는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지금 이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은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김만덕국제상은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을 계기로 김만덕국제상이 제정되어 국제사회와 손잡고 빈곤 퇴치와 평화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평화와 나눔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양원찬

Wonchan Yang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Chairman, Kim Man-duk Foundation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양원찬입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공론화를 위한 세션을 개최하게 되어 그동안 김만덕 기념사업을 해온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김만덕을 제주를 넘어 전국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 섬 안에 머물러 있던 김만덕을 ‘김만덕 나눔쌀 만 섬 쌓기’ 등 그 정신을 잇는 나눔활동을 통해 전국화를 이뤄냈고, 이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들이 교과서를 통해 김만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번푸만덕중학교’와 ‘칸호아제주초등학교’의 학생들도 대한민국 김만덕의 나눔과 주체적인 삶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국립 박물관으로서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제7회 제주포럼에서 ‘21세기 시대정신과 김만덕’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개최해 ‘21세기 사회의 양극화와 통합’, ‘세계빈곤퇴치운동’, ‘기업가의 기부문화’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참여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올해, 이제는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전세계 빈곤퇴치활동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김만덕국제상 제정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이번 세션을 통해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제정 준비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션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순덕

Soondeok Moon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President,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문순덕입니다.

오늘 “김만덕국제상 제정”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함께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나눔과 평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1795년 제주도민을 살린 김만덕의 나눔은 단순한 부의 사회 환원이 아닌 이웃과의 공존이며, 이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평화입니다. 21세기에도 빈곤은 인류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번 포럼은 김만덕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김만덕국제상을 제정해 전지구적 빈곤퇴치를 위한 활동에 헌신하고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 단체 또는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통하여 ‘평화와 생태의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김만덕상의 글로벌화를 통해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의와 다자간 협력방안, 국제적 협력과 연대 방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기초발표를 맡아주신 고두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님과 발표를 맡아주신 프레다 미리클리스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좌장 역할을 맡아주신 예종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실 양원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 송경애 (주)BT&I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통하여 김만덕 정신이 세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나눔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종석

Jongsuk Ye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Hanyang University



예종석 교수는 1953년 12월 13일 출생으로 Indiana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는 한양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이다. 비영리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제일모직, 두산 등 여러 기업의 사외 이사로 역임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미래전략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으며 대한민국경영대상 학술공헌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종석 교수의 아주 특별한 경영수업』, 『희망경영』 등 다수가 있다.

Professor Jongsuk Ye was born on December 13, 1953,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a master's degree in business management, and a Ph.D. in business management from Indiana University. He is currently a Professor Emeritus at th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He had also been active in the non-profit sector,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and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Beautiful Foundation. He had served as the non-executive director of various companies including Cheil Industries and Doosan, and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and the Korean Society for Future Strategy. He was awarded the Order of Service Merit Aquamarine Stripes and won the Academic Contribution Award at the Korea Management Awards. He is the author of 'Noblesse Oblige' and 'A Very Special Lecture on Business Management by Professor Ye Jongsuk', and 'Business Management as Hopeful as It Gets' among others. .

기조발표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나눔문화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

고두심

Dooshim Goh

배우

Actress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

Director, Kim Man-duk Foundation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3
FOR PEACE & PROSPERIT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고두심

Dooshim Goh

배우

Actress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

Director, Kim Man-duk Foundation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의 고두심 이사는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국민배우이다. 방송 3사와 백상예술대상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배우이며, ‘2020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제주 출생인 고두심 이사는 바쁜 연기생활 속에서도 고향 제주를 위한 활동과 김만덕 기념사업에 헌신해 왔다.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과 베트남 만덕학교 설립,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는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로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Director Dooshim Goh of Kim Man-duk Foundation is a renowned Korean actress with 50 years of career. She is the only actress who has won the Best Actress Award from all three major broadcasting stations of Korea, and the Baeksang Arts Awards. She was award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 Eun-Gwan at the 2020 Korea Popular Culture and Arts Awards. Born in Jeju, Director Dooshim Goh has involved herself in various activities for her hometown, Jeju, and has been active in commemorative projects for Kim Man-duk. While serving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Kim Man-duk Memorial Foundation, sh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various charity projects for those in need. She was also instrumental in the establishment of Man-duk school in Vietnam, and the building of the Kim Man-duk Memorial Hall. Currently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Kim Man-duk Foundation, she is also Korea's beloved actress, starring in various films and TV series.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나눔문화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오늘 저는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 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김만덕 국제상을 제정하자’는 말을 꼭 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좋은 뜻을 세웠으니 실천하면 되는 일입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제부터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김만덕의 나눔 정신 전 세계 확산 필요

김만덕은 알다시피 여성, 신분, 지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한 최초의 대한민국 여자 거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재난으로 굶어 죽어 가는 제주 사람들을 살린 조선시대 최초의 자선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또 제주 사람들은 육지로 나갈 수 없게 했던 ‘출륙 금지령’을 깨고 정조대왕의 부름을 받아 국비로 육지를 다녀옴으로써 도민들의 살길을 터준 역사의 영웅입니다.

김만덕의 숭고한 삶과 정신이 전 세계에 확산돼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를 평화롭게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3년 4개월만에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팬데믹 초기만 해도 인류는 ‘공통의 재난’에 직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인류 공공재가 되리란 희망과 기대는 이기주의와 독점의 벽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 부의 불평등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200여 년 전 살았던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김만덕, 시대·환경·자신을 넘어선 위인

제주의 나눔 할망, 김만덕은 인류를 구원할 새 인간상입니다. 성공한 그녀의 삶을 관통한 것은 나눔과 도전 정신, 그리고 주체성입니다.

- △기생 김만덕이 관가에 직접 호소해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점
- △남성 의존적 삶을 거부하고 평생 결혼하지 않은 점
- △여자로서 직접 객주를 운영하면서 유통업에 뛰어든 점
- △자신의 전 재산을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위해 내놓은 점
- △제주 출륙 금지령을 사실상 해제시킨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때는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있었고, 조선에서는 상품화폐 경제가 막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김만덕은 이 시절 실학자들의 생각을 먼저 실천하면서 육지와 섬의 상품의 교역을 통해 박리다매와 유통구조 혁신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까지 몸소 실천했습니다.

김만덕은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돈을 무작정 아무에게나 푼다고 해서 도움 될 일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재물이야말로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것을 직접, 실천을 통해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녀를 세계적 인물로 만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김만덕의 신분과 살아온 과정에 비추었을 때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전 재산과 바꾸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그녀에게 재산이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인 동시에,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힘들게 쌓아온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여 타인의 불행에 눈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만덕은 **시대와 환경을 넘어 자기자신도 이겨낸 진정한 위인**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랬기에 구휼의 대가로 정조 임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재산이나 권력이 아닌, ‘한양과 금강산’을 가고 싶다는 소원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물으로 나간 일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시대의 질곡을 하나 더 뛰어넘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년 가까이 제주 섬 자체가 감옥이었던 ‘출륙 금지령’을 유명무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김만덕은 그만큼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은 물론 당시 스타 정치인이었던 채제공, 정약용, 박제가, 이가환 등의 문집에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에 정면으로 도전한 김만덕. 그래서 김만덕 스타일은 요즘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심화된 부의 불평등

유엔은 오랫동안 부의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의 노고를 과거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소득과 기회에 대한 불평등은 더없이 불공정하고, 불건전하며,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백신 제조 기술을 공유해 더 많은 지역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분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억만장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산을 축적해 더 큰 부자가 됐고, 일부 기업은 유례없는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던 2020년에서 2021년 2년간 새로 창출된 부의 63%를 상위 1% 슈퍼리치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작년 5월 ‘**고통으로 얻은 이익**’ 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에 **새 억만장자는 30시간마다 1명씩 탄생**했지만, **극빈층은 33시간마다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슈퍼리치의 생존’ 보고서를 발표하고, **극단적 부와 빈곤이 25년 만에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니** **각국 정부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은행(WB)도 불평등과 빈곤에 주목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평등과 빈곤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경제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전 세계 국가 간 불평등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 부속 연구기관인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낸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상위 10% 부자가 전 세계 자산의 76%를 가진 반면, 하위 50%는 2%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북 28배, 강남 60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평균임금은 약 2배가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는 가난해 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결국 노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어도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쉽지 않고, 부자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부자 부모는 많은 사비를 들여 자식을 교육하고, 자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일자리를 얻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부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부를 독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대물림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나눔과 기부가 세계를 지탱하는 힘

세계 기부 역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과 같이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지위나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나타냅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제국의 2천 년 역사를 지탱해준 힘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을 지칭한 바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뒤떨어졌던 로마인들이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무려 천 년 동안이나 강국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철강 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20세기 미국 기부문화의 시발점으로 현재는 10만여 개의 크고 작은 자선 재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부에 참여한 결과 개인들의 기부가 총 기부액의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을 지탱해주는 실질적인 힘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군사력이 아닌 기부와 봉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1980년부터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삶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김만덕상을 제정

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1-2명씩 선정해 55명의 여성에게 시상해왔습니다. 김만덕상 수상자는 김만덕의 후예답게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제 18세기 말 사회적 구휼 활동에 투신한 김만덕처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나눔과 자선활동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선의 여장부 김만덕은 제주의 김만덕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김만덕, 세계의 김만덕으로 재조명돼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기부왕 카네기보다 100년 앞서 나눔을 실천한 이가 바로 김만덕입니다.

진심이 담긴 기부는 위기에 처한 세상을 평화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부는 나 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인류 역사상 불평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된 적이 없고 언제나 전염병, 전쟁, 혁명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부의 불평등의 악순환은 이미 구조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면 사회 곳곳에서 각종 파열음이 날 것입니다.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가진 사람은 담장을 더 높이 쌓을 것입니다.

은광연세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지원재단(CFA)은 매해 전 세계 14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나라별 세계 기부지수를 발표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세계기부지수의 상위권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던 나라 중 기부지수가 높은 국가는 줄었고, 그 대신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들의 기부지수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향은 기부 문화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은광연세’

이는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제주도민들에게 추앙받던 김만덕(1739-1812)을 기리며 그녀의 후손에게 써준 글귀입니다.

‘큰 은혜(恩)의 빛이 세상에 가득 흐르다’는 의미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지혜를 발휘해왔습니다. 특히 김만덕처럼 가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 용기는 인류를 지속가능하게 지탱해온 힘입니다. 김만덕은 지역, 신분, 성별, 직업 등 여러 차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나눔에는 귀천이 없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귀한 존재라는 가르침을 남긴 인물이 바로 김만덕입니다. 제2, 제3의 김만덕이 행한 은혜로운 빛이 온 세상에 퍼져갈 때 우리 인류에 닥친 위기는 평화롭게 극복되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련된 자리에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들의 고견들을 모아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이라는 훌륭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후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세계 여성경제인 네트워크와
호주 이니셔티브로부터의 교훈

프레다 미리클리스

Freda Miriklis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
Chair, Commonwealth Businesswomen's Network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 이사
Board member, The Hellenic Initiative Australia

박애를 위한 여성들 대표
Chair, Women in Philanthropia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3
FOR PEACE & PROSPERIT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프레다 미리클리스

Freda Miriklis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
Chair, Commonwealth Businesswomen's Network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 이사
Board member, The Hellenic Initiative Australia

박애를 위한 여성들 대표
Chair, Women in Philanthropy



프레다 미리클리스는 영연방 및 유엔 차원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임팩트 리더로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연합과 전 세계의 취약한 커뮤니티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민간 자선 재단에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프레다는 25년의 국제 개발 경험을 가진 옹호자이자 전략가이며 박애주의자이다. 그녀의 옹호와 자문 활동은 그녀를 80개국 이상으로 데려갔고, 고위급 포럼에서 연설하고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걷도록 하였다. 그녀는 전 세계의 취약한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시설 조성 기금을 제공하는 민간 자선 재단을 이끌고 있다. 프레다는 현재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THI)의 이사이자, 「박애를 위한 여성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프레다는 56개 정부에서 인정한 여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유일한 공인 조직인 「커먼웰스(영연방) 여성경제인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글로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프레다는 전문직여성 세계연맹(BPW)의 회장(2011-2014)을 역임했고, 이에 대한 공로로 호주 BPW의 평생회원 자격을 받았다.

A global impact leader working at Commonwealth and United Nations level recognised for delivering business coalitions focused 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nd strategic advice to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bringing transformative change to vulnerable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Freda is an advocate, strategist, and philanthropist with 25 yea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xperience. Her advocacy and advisory work have taken her to over 80 countries, speaking at high-level forums and walking with people and communities. She spearheads a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 that provides funding for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 facilities for vulnerable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Freda is a board member of The Hellenic Initiative (THI) Australia and chairs the Women in Philanthropy Taskforce. She shapes global policy as Chair of the Commonwealth Businesswomen's Network (CBWN) – the only Accredited Organisation on women's empowerment recognised by 56 governments. She has been bestowed Life Membership of BPW Australia for her services as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2011-2014).

Women's leadership for sustainable peace: lessons from a global businesswomen's network and Australian initiatives

It is such an honour to return to Jeju Island and the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after 10 years. My fascination with this beautiful island runs deep. Maybe because of my Hellenism I was drawn to your 'Island of the Gods'.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Tyche, the Greek Goddess of fate, fortune, and chance, was the embodiment of the whims of destiny, both the positive side and the negative side. Tyche was responsible for the entire community, not just the individual. Resembling Gamunjang-Agi, who according to Jeju Island's mythology, was the goddess of fate and luck, who at an early age saw, within herself, the key to her own fate and to use this in the plight of others.

Man-duk embodied these goddess-like qualities and as the first female CEO of Korea, owned a commission agency for port trade, using her extensive government network and powerful connections, to gain a monopoly on imported rice and salt, ultimately demonstrating compassion in the form of philanthropy. Yet despite their obstacles, Tyche, Gamunjang-Agi, and the legendary Kim Man-duk all recognized their self-worth and ability, allowing them to find a way to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and think for the collective whole rather than for themselves.

Today, we face a series of interlinked crises in the world and the persistent blight of patriarchal oppression continues. The systemic soci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that which has denied women their rights and dignity for centuries. If we dared to reimagine what a new model of global leadership could like. A new wave of feminist solidarity and justice to create global solutions applied to some of the world's most pressing challenges. Because women innately think for the collective whole rather than for themselves and when this occurs peace is possible and can have a more sustainable impact.

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nests women as essential to peace and security because they create ties across opposing factions and increase the inclusiveness,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of peace processes. I believe that more than ever we need women and men leading side by side and for this to be effective they need to be bold, able to fa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e true to themselves, while demanding better from themselves and those in their leadership.

So allow me to segue on reflections of lessons of experience and where I left off in 2013. As it has transpired, I have stepped into four key roles with a common theme of women's leadership: to support empowerment, sustainability, and peace for a better, kinder, world. Looking to the future and in consideration of generations to come. I will share lessons of experience based on the Pillars of Peace:

1. Breaking the culture of gender inequality
2. Steady employment increases the chance for peace
3. Universal access to education is fundamental for peace

through the lens of:

Commonwealth Businesswomen's Network

Our vision is to eliminate inequalities across the Commonwealth creating an inclusive Commonwealth where every woman and girl has a voice, choice, and independence to create. At the heart of what we do is harnessing the power and potential of women in business from Commonwealth countries. We are breaking down gender barriers. We are change agents committed to gender equality and systemic change.

Two of the key areas that set CBWN apart from other women's organisations is our convening power and the access which our accredited status provides us, to engage and influence

policymakers through participation in Commonwealth Ministerial meetings. Over the last few years before COVID, CBWN put more women in front of more government officials than any other organisation including Ministers of Women's Affairs, Trade, IT, Law, Youth, Education, Health and Heads of Government with representatives self-funding their participation.

CBWN is the only accredited organisation on women's leadership and economic empowerment to 56 Governments accounting for 20% of world trade and including a billion women with 60% under the age of 30. Working with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women in business to encourage, enable and embed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cross the Commonwealth through delivering activities, initiatives, products and services focused on trade, talent and training.

The Hellenic Initiative Australia

The Hellenic Initiative (THI) is a global, non-profit, secular institution mobilizing the Greek Diaspora and Philhellene community to support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 and renewal for Greece and its people. Supporting 11 NGOs across health, social services, education and employment pathways. Its vision is a strong and sustainable Greece and will share some of the success stories and impact.

TX Foundation

TX Foundation is a philanthropic organisation estab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providing education opportunities for children, especially girls, in underprivileged and remote community areas around the world. The full name of TX Foundation is Tzu-Xing and its direct translation is kindness walking. TX Foundation is Kindness Walking for Education. Spearheading this organisation, since 2016 the Foundation has completed 78 school projects in over 50 countries supporting over 100 communities across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and we expand our footprint into Eastern Europe next month.

Women in Philanthropia

Under the auspices of The Hellenic Initiative Australia, Women in Philanthropia, is a philanthropic movement in the making. A call to action born out of the need to recognise how women (Hellenes and Philhellenes) can harness their passion and learn how to give back to Greece. We call this inspired giving and I am privileged to be its Chair.

To our core, is our purpose that stems from philanthropia - (philia, friendship, love + anthropos, human) and means “humanity, benevolence, kind-heartedness - the love of humanity. A global philanthropic movement to reflect a new era of inspired giving and inspired leading. For women, by women. Women in Philanthropia is born from the need to keep the Hellenic spirit of the diaspora alive for future generations offering support for a brighter, better Greece.

Coming back full circle, we all need heroes like Tyche, Gamunjang-Agi, and Kim Man-duk. They left their imprint through their values and virtues and show us what is possible, inspiring us to take up the charge.

So you may be thinking how does women leadership influence sustainable peace? By seeking to harness the power and potential of women and matching it with inspired giving and inspired leading each feeding and propelling the other forward. At the core it is purposeful and intentional, not random.

As the Dalai Lama said...

Just as ripples spread out when a single pebble is dropped into water, the actions of individuals can have far-reaching effects.

Women as leaders can be deliberate about their ripple effect for a safer, loving and more peaceful world. Thank you.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 세계 여성경제인 네트워크와 호주 이니셔티브로부터의 교훈

10년 만에 제주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다시 찾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 저는 깊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의 헬레니즘 때문에 여러분의 '신들의 섬'에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운명과 행운과 기회의 여신인 티케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모두 지닌 운명의 화신이었습니다. 티케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책임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운명의 열쇠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역경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썼던 제주의 신화에 나오는 운명과 행운의 여신인 가문장아기와도 닮았습니다.

김만덕은 이러한 여신과도 같은 자질을 지녔으며, 한국 최초의 여성 CEO로서 항구 무역과 객주를 운영하고, 폭넓은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쌀과 소금을 구매하고, 궁극적으로 자선사업의 형태로 측은지심의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티케, 가문장아기, 김만덕은 모두 그들 앞의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깨달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된 여러 가지 위기들에 직면해 있고, 가부장적 억압의 어두운 그림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사회적, 경제적 차별은 수 세기 동안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 감히 상상해 보자면, 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물결의 페미니스트 연대와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자신보다는 집단 전체를 생각하고 이것이 일어날 때 평화가 가능하고 더 지속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의하면 여성들은 서로 대립하는 당파들을 연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포용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평화와 안보를 위

한 필수적인 존재로 위치 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과 남성이 나란히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믿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들이 대담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며, 자신에게 진실하며, 자신과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제가 2013년(제주포럼에 왔었던) 이후에 경험하고 배운 것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 리더십이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역량 강화, 지속가능성, 그리고 보다 낮고 보다 친절한 세상을 위한 평화를 지원하는 네 가지 주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는 그 네 가지 일들을 다음과 같은 ‘평화의 기둥’에 기초하여 해 왔는데, 그 경험들로부터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 불평등 문화를 근절한다.

안정적인 고용은 평화의 기회를 확장한다.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CBWN)

우리의 비전은 모든 여성과 소녀가 목소리와 선택권과 독립성을 가지는 포용적인 영연방을 만들기 위해 영연방 전역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영연방 국가들의 비즈니스 여성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모으는 일입니다. 성별에 의한 장애물들을 무너뜨립니다. 성평등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헌신하는 변화의 주체입니다.

다른 여성 단체들과 차별화되는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결집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인된 지위를 통해서 영연방 정부의 장관급 회의에 참여해서 정책결정자들과 논의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CBWN은 그 어떤 타 조직들과 비교할 때, 여성, 무역, IT, 법률, 청소년, 교육, 건강 등의 다양한 정부부처들의 공무원들 앞에, 그리고 정부의 대표성 있는 지위에 더 많은 여성들을 내보냈습니다.

CBWN은 세계 무역의 20%를 차지하고 60%가 30세 미만인 10억 명의 여성 인구가 있는 56개 정부의 여성 리더십 및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유일하게 공인된 조직입니다. CBWN은 정부, 민간 부문 및 여성 기업과 협력하면서 무역, 재능 및 교육훈련에 중점을 둔 활동,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연방 전역에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장려하고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THI)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는 그리스 디아스포라와 그리스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동원하여 그리스와 그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재개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 민간기관입니다. 건강, 사회 서비스, 교육 및 고용 경로 전반에 걸쳐 11개의 NGO를 지원합니다.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의 비전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그리스이며, 이니셔티브의 일부 성공 사례와 영향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TX 재단(慈行 자행 재단)

TX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소외되고 외딴 지역의 어린이, 특히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선단체입니다. TX는 Tzu-Xing(慈行)의 약자이며 직역하면 친절한 동행입니다. TX 재단은 교육을 위한 친절한 동행인 것입니다. 재단은 2016년부터 이 조직을 주도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개 이상 커뮤니티의 78개 학교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에는 동유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애를 위한 여성들

〈박애를 위한 여성들〉은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박애주의 운동입니다. 이 단체는 여성들(헬레네 또는 친헬레네)이 자신들의 열정을 활용해서 그리스를 도울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감을 주는 기부라고 말하고, 저는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핵심 목적은 박애주의로부터 유래한 인류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박애주의(philanthropia : 필리아, 우정, 사랑 + 인류, 인간)는 인류, 자비, 친절의 뜻을 지닙니다. 이 운동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영감을 주는 나눔과 영감을 주는 리더십의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글로벌 박애주의 운동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티케, 가문장아기, 김만덕 같은 주인공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와 미덕을 통해 각인을 남겼고,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성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힘과 잠재력을 활용하고, 이를 영감을 주는 나눔으로 연결하고, 그것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중심은 우발적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이고 의식적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씀하셨듯이

물에 던진 작은 조약돌이 잔물결을 일으키듯이
개인들의 행동은 지대한 영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고, 사랑하며,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그들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1

김만덕 선양사업의 성과와 김만덕국제상의 비전

양원찬

Wonchan Yang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Chairman, Kim Man-duk Foundation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3
FOR PEACE & PROSPERIT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양원찬

Wonchan Yang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Chairman, Kim Man-duk Foundation



양원찬 박사는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의 이사장이며, 정형외과 전문의(의학박사)이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최초의 팀닥터(OB BEARS)로 활동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치의를 역임했다. 모교인 한양대학교총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을 역임하며 재외제주도민들의 화합과 고향 제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2003년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Dr. Wonchan Yang is the Chairman of the Kim Man-duk Foundation. He is also an orthopedic surgeon(Ph.D.). He served as the team physician for OB BEAR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e also worked as the physician for Korea's national team during the 1988 Seoul Olympics. He served the president of the Alumni Association of his alma mater, Hanyang University. In addition, h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olidarity of Jeju people living outside Jeju island, and to the development of his hometown, Jeju by serving as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the Associations of People of Jeju outside, and the Association of People of Jeju in Seoul. In particular, h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m Man-duk Memorial Project, and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culture of sharing and volunteerism.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im Man-duk Foundation, and dedicates himself to promoting the spirit of Kim Man-duk around the globe. .

김만덕 선양사업의 성과와 김만덕국제상의 비전

굶주림으로 아사에 직면한 제주도민을 살린 김만덕은 ‘만덕할망’으로 불리며 마치 설화 속의 인물처럼 기억될 뻔 했었지만, 현명한 우리 제주도민들은 김만덕과 그 정신을 실체적 역사로, 주요한 인문유산으로 제주도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시대정신으로 바르게 세워냈다.

■ 김만덕 기념사업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기념하는 사업은 1971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제주의 명망가들이 김만덕기념사업회를 결성해 김만덕 전기를 발간하고, 김만덕의 묘를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로 이장했다. 이후 제주 출신의 뜻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김만덕을 기리는 사업의 명맥이 이어졌다.

2003년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에 나섰다. 2007년 제주 관덕정광장에서 김만덕 나눔쌀 천섬 쌓기, 2009년 광화문광장과 2012년 서울시청광장에서 만섬 쌓기를 개최해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국가표준영정 지정, ‘거상 김만덕’ 드라마 방영,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등으로 이어져 김만덕을 전국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념사업은 해외로 향했다. 베트남에 김만덕과 제주의 이름을 새긴 번포만덕중학교와 칸호아제주초등학교를 건립해 기부했고, 남수단 아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지원하고 몽골과 캄보디아의 빈곤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성장 발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2015년에 개관된 김만덕기념관(1층 공립박물관)은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는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 김만덕기념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 김만덕상

현재의 김만덕상은 1980년 1회 만덕봉사상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에 따라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품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 사회에 헌신·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43회, 55명이 수상했다.

1980년에 시작된 김만덕상은 26년이 지난 2006년(제주도김만덕상 조례 제정, 2006.4.12)에 수상자의 자격이 제주도민이라는 벽을 넘었으며, 현재까지 제주도내 42명, 도외 8명, 해외 5명이 수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보자 추천자격은 국내 행정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의 연서명으로 한정되어 있기도 하다.

김만덕이 국내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김만덕상을 제도화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로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 김만덕국제상

UN은 2015년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글로벌 공동 추진 목표의 첫 번째는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No Poverty)이며, 두 번째 목표는 굶주림의 종결(Zero Hunger)이다. 김만덕 사후 211년이 지난 지금도 전 지구적 과제가 빈곤과 굶주림인 것이 현실이다.

김만덕의 나눔과 정신, 시대의 한계를 극복한 삶은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특히 부의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부자들에게는 각성과 사심 없는 기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김만덕의 나눔정신은 평등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위대한 정신이다. 대한민국을 넘어선 영원한 시대정신이자 역사이다. 김만덕의 고향 제주의 아름다운 수놓음문화와 김만덕의 공존을 위한 실천,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한 도전정신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김만덕국제상의 제정은 시급한 우리의 과제이다.

전지구적 빈곤퇴치를 위한 활동에 헌신한 인물이나 단체, 사회환원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나 기업)을 선정해 김만덕국제상을 시상하고자 한다. UN 등 국제기관, 국제

구호개발NGO, 국내외 저명 언론사와 학계, 국제구호활동가 등이 후보자 추천과 수상자 선정과정에 참여해 김만덕국제상의 권위와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빈곤퇴치활동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세계 빈곤퇴치활동의 상징으로 김만덕이** 우뚝 서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주도의 글로벌도시 브랜드도 강화**될 것이다. 김만덕 기념사업의 진정한 세계화라는 새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김만덕국제상의 제정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은 김만덕재단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모두 함께 의지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김만덕재단 제3자간의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TF(Task Force) 구성을 제안**한다.

TF에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에 관한 전반(법적 근거, 예산, 제정위원회, 추천 및 심사 등)을 속도감 있게 계획하고 실행해 빠른 시일내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첫 번째 김만덕국제상 시상식이 개최되기를 기대해 본다.

토론2

국제자유도시 제주,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의와 다자간 협력 방안

양영철

Youngchul Yan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CEO & Chairma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3
FOR PEACE & PROSPERIT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양영철

Youngchul Yan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CEO & Chairma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양영철 이사장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어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34년간 재직했으며, 현재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제주 발전을 위한 교육, 헬스케어, 첨단산업, 관광분야의 핵심적인 국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 T/F위원장, 한국지방자치 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지방자치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기부와 자선단체에도 관심을 가져 김만덕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으로서는도 활동했으며, 관련 저서 「오병이어의 기적, 제주한림이시돌 맥 그린치 신부」(2016)도 집필하였습니다. 양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제주, 그리고 함께 상생에 관한 열정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Chairman Youngchul Yang was born in Seogwipo-si, Jeju-do, and served as a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at Jeju National University for 34 years. After retirement, he is carrying out core national projects in the fields of hi-tech, education, medical care, and tourism for the development of Jeju as the chairman of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JDC). Chairman Youngchul Yang has also worked hard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such as serving as the chairman of the autonomous police task force of the Presidential Local Autonomy Development Committee and serving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He is also interested in the field of donation and charity, and served as the operational chairman of the Kim Man-duk Memorial Foundation. He wrote a book which is about the story of Patrick McGlinchey, who made an outstanding development in Jeju just like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in the Bible. His enthusiasm about the Jeju and a society for coexistence will be continued.

국제자유도시 제주,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의와 다자간 협력 방안

■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 JDC는 제주와 한국의 국제적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공기업
- 기관의 일차적 임무는 제주를 글로벌 도시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 글로벌 성장을 위한 SOC 구축

-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 확대
- 최첨단산업단지 운영 및 국제수준의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정착, 개방적 관광과 의료산업의 추진
- 향후 KAIST 사업 유치, 국제적 수준의 연구원 유치 등을 통하여 제주개발의 Game Changer 역할을 할 것임

■ 제주신뢰 향상을 향한 ESG 중심 경영

-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주도 내 청소년 대상 ‘제주국제학교 영어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2023년도 기준, 약1천명/10억투자)
- 또한 도내 청소년의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의 체험형 순방과 교류 실시 등 연간 약 160억원에 달하는 제주도민 국제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향후에는 해녀 등 지역개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지속가능한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의와 다자간 협력 방안

-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21년간 주도하고 있음
- 김만덕은 제주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로서 JDC가 김만덕 이미지를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이 필요
- 아직도 세계빈곤퇴치는 UN의 첫 번째 과제(UN SDGs)인 만큼, 나눔을 상징하는 김만덕국제상 제정은 제주의 글로벌도시 경쟁력 강화에 미칠 영향력과 중요도가 매우 높음
- 김만덕국제상의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는데 JDC는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으며, 지역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가진 김만덕국제상이 지속가능한 수준의 국제행사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겠음
- 더불어 김만덕국제상 제정 이후 JDC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음

토론3

여성경제인·김만덕상 수상자의 관점에서 본 김만덕국제상의 의의

송경애

Kay Song

(주)BT&I 대표이사

Chair, BT&I

김만덕상 수상자

Winner of Kim Man-duk Award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3
FOR PEACE & PROSPERIT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송경애

Kay Song

(주)BT&I 대표이사

Chair, BT&I

김만덕상 수상자

Winner of Kim Man-duk Award



송경애는 (주)BT&I 그룹 대표이사이다. 여성CEO로서 기업체 전문 여행그룹 비티앤아이(BT&I)를 3,000억원 대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인 SM과 합병후 SMC&C를 운영하는 등 한국의 여행전문가 그룹의 오피니언리더이다. 2016년 SMC&C에서 MICE 사업을 분리, 양수해 현재의 BT&I그룹을 설립해 경영하고 있다.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2010년 여성CEO 최초로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등 활발한 기부활동을 통해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 기부영웅 4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2013년에는 김만덕상 경제인부문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Kay Song is the Chair of BT&I Group. As a woman CEO, she turned the BT&I Group, a travel business for firms, into a KOSDAQ-listed company with 300 million dollars in revenue generated from air ticket sales. She then merged it with SM, a global entertainment group, into SMC&C. Indeed, she is an eminent opinion leader in the travel industry in Korea. In 2016, she separated the MICE business from SMC&C, and built it into what is BT&I group now. She has also been engaged in various charity activities through donations. In 2010, she joined the 'Honor Society', a group of donors with contributions over 100,000 dollars, for the first time as a woman CEO. She was also named as one of the 48 heroes of philanthropy in Asia by Forbes. In particular, in 2013, she won the Kim Man-duk Award in the corporate field. She continues to make an endeavor to promote the culture of giving.

여성경제인·김만덕상 수상자의 관점에서 본 김만덕국제상의 의의

1987년 25세의 나이에 자본금 250만원으로 BT&I라는 여행사를 창업했습니다. 비즈니스에 매진해 매출 3,000억원대의 규모로 성장시켜 2006년에 첫 여행사 여성 CEO로서 회사를 국내 최초 MICE 전문여행사로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여성으로서, 기업인으로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성별의 굴레를 넘어서 비즈니스를 통해 부를 이루고, 전재산을 기부해 제주도민을 살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김만덕이야말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여성 경제인들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여성 CEO 최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남편과 아들도 같이 동참하여 '패밀리 아너' 가족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포브스 선정 아시아 기부 영웅 48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부를 통한 사회환원은 우리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상징하는 '은광연세'는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넘치다'라는 뜻으로, 나눔의 정신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우리 가족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2013년 제34회 김만덕상 경제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만덕상 수상 이후 아프리카 말라위의 우물 사업과 후원 활동을 통해 해외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여성 아너클럽인 'W 아너'의 전국 총리더를 맡아 여성들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시작된 김만덕상은 26년이 지난 2006년부터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도 수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을 뛰어넘는 폭넓은 인정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 저도 김만덕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2006년의 긍정적 변화가 그랬던 것 처럼, 이제 김만덕상이 세계적 위상을 가진 글로벌어워드로 도약해 더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취지에 여성기업인으로서 또한 김만덕상 수상자로서 강력히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김만덕국제상이 제정된다면 그 뿌리가 되는 김만덕상 수상자로서 더욱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김만덕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K-나눔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날을 기대하며, 김만덕 수상자로서 저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김만덕과 나눔의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3
FOR PEACE & PROSPERIT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Sharing and Pea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Kim Man-duk Global Awards

